

# 행동하는 교회로의 초대

## WHAT IF WE RETHINK CHURCH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September/October 2009  
Volume 12 Number 5

섬기는사람들은 일세대 교우들의 신앙증진을 위해 섬기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의 사역을 위해 섬기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연합감리교인으로서의 연대감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자들을 섬긴다.

**연락처**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P.O. Box 320  
Nashville, TN 37202  
Phone (615) 742-5118  
Fax (615) 742-5469  
kumc@umcom.org

www.KoreanUMC.org  
© 2009 발행 및 판권 소유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편집인** 김광기  
dkim@umcom.org  
**부편집인** 김영주  
ykim@umcom.org  
**디자인 책임** Ebenbrook Corp.  
info@ebenbrook.com  
**광고 책임** Celinda Hughes  
chughes@umcom.org  
**인쇄 책임** Loney Carlton  
lcartlon@umcom.org  
**부발행인** Kathy Noble  
knoble@umcom.org  
**발행인** Larry Hollon  
lhollon@umcom.org

**이번호 집필진**  
박영미 pastorconstance@msn.com  
성백은 revcsung@gmail.com  
송계영 skyeoung@hotmail.com  
이미생 meesaeng.choi@asburyseminary.edu  
이성철 revsunglee@yahoo.com  
이성호 rev.sungholee@gmail.com  
장찬영 pastorjang@kumcsfla.org  
정성혜 hykimysu@hanmail.net  
Jonathan Park jtfm1@hotmail.com  
Judy Chung pastorstjudychung@gmail.com  
Kathleen Thomas-Sano kthomas-sano@gcorr.org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집하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는  
연합감리교회 성도와 세계를 위해 정보와 감동을  
나누고 이어줍니다.

### 섬기는사람들 구독신청

1992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섬기는사람들"은 격월간 잡지로  
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자와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615-742-5765/5118 또는  
이메일 kumc@umcom.org로 연락하면 된다.

“Open Hearts, Open Minds, Open Doors” 우리가슴, 우리마음, 우리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연합감리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이그나이  
팅 사역의 일환으로 시작된 운동이었다. 올해부터 이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연합감리교회는  
“Rethink Church”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세상을 향  
해 선교공동체로 다가가는 운동이다. 우리는 교회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build-  
ing)로만 생각하고, 주일예배를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교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도 미미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의미를 되찾  
아야 한다. “Rethink Church” 캠페인에서 도전하듯 “What if we rethink church”(만약 우  
리가 교회를 다시 생각한다면)라는 구호와 함께 “정적인(static noun) 교회”에서 “행동하  
는(active verb) 교회”로, 변화(transformation)를 일으키는 교회로, 일주일의 나머지 6일  
에 더 관심을 가지며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로, 누구나 문을 두드리면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교회로 세상에 다가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개신교단이 교인감소를 경험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찌 보면 교  
회와 세상의 벽은 점차 더 높아져 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구시대적 사고의 틀  
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드류신학대학원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박사가 지  
난 한인총회에서 지적하듯 이제 더는 구시대적 사고의 틀에 갇혀있는 Gutenberg 세대의  
“APC 교회,” 즉 “사람을 교회로 부르고 교회에 머물게 하는 유인적(Attractional) 교회, 자  
신의 입장이 정설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확산시키는 명제적(Propositional) 교회, 정  
통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을 모형으로 복제물을 재생산하는 식민적(Colonial) 교회”로 표  
류해서는 안 된다. 연합감리교회가 추진하는 “Rethink Church”는 바로 구시대적 교회상  
을 떨쳐버리고 세상에 다가가고, 참여하고, 연결하는 교회로, Google 세대의 특징으로 대  
변되는 “EPIC(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rich, Connected),” 즉 “경험, 참여, 이미  
지 풍부, 연결”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다가가는 교회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여전히 시대의 흐  
름과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상에서, 특별히 젊  
은 세대에게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교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설  
정한 안전지대(Comfort Zone)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이나 새로운 도전을 수용하지 않으  
려 한다. 교회가 늘 세상의 변화를 외치면서도 스스로의 변화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세상  
의 누룩이 되지 못하고 변두리에 눌러 앉게 되는 것이다. 이제 교회가 세상 한 가운데 우뚝 서고 수천 개의 문을 열어 놓고 구원과 소망  
과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변화의 중심점에 서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바로 그 문의 하나가 되길 바라면서.



김광기 목사  
편집인